

성도의벗 11 1998

편집부 : 어리이랑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5월 11일



표지:

앞: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함" (26쪽)에서, 밀일성도들이 복음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체험한 소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눴다.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리)

어린이란 표지:

네 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림: 해리 앤드슨/ 리뷰 앤드 헤럴드 출판 연합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5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로버트 제이 매튜즈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 26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함
- 32 여러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 콕스 -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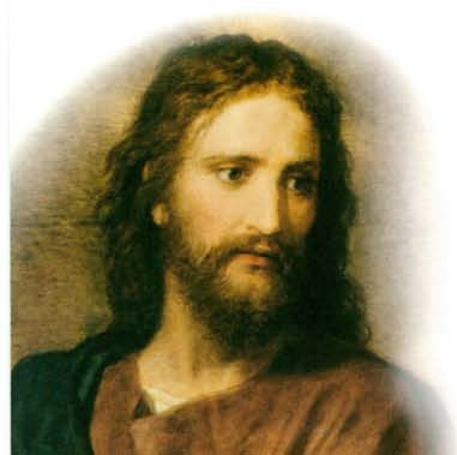
청소년란

- 8 영에 이끌려 나아감 로날 나바로 구티레스
- 10 빛의 도시 리처드 엠 롬니
- 22 백 번째 양 제임즈 에드워드 피더슨
- 39 질의 응답: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 43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 46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셀 비 워스린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초원의 불 레베카 토드
- 5 감사하는 마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6 함께 나누는 시간: 감사를 드림 시드니 레이놀즈
- 8 어린 친구를 위하여: 로베르토는 잊지 않아요
매튜 케닝턴과 대니얼 케닝턴
- 10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비버안 폴슨
- 12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함: 모범을 보임
니탈리 루시 실바
-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디 제이 셔우드와 린다 셔우드

32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미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스티븐 에이 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킳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럴

편집인: 잭 에이저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첼슨, 존 웹 매드슨

교파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웹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셸,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엔 미틴태일
제작 보조: 베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킳트 벤 캠펠
디자인어: 세리 쿡
제작 부장: 체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자: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래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2호, 제 35권, 제 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8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말일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부담하셔서 합니다.

수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편자인 본 잡지는 한국 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필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기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1998 vol.35 No.11, SONGDO-UT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새로운 시작

리아호나(스페인어판), 1998년 2월호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를 읽고 난 후, 저는 이 기사에 대해 에스 마이클 윌콕스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계 상대적인 것은 단순히 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기록한 성경을 개발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호에 있는 로버트 엘 밀렛 형제님의 재미있는 글 "인간 아담"에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기사를 읽으면서 영을 느꼈습니다.

나바로 장로,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선교부

책을 통독함

저는 리아호나(영문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란까지 빼놓지 않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서 읽게 되는 전세계 여러 지역의 사랑 많은 성도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또한 청소년간 기사, 그리고 특별히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서 항상 영감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올레타 데 토마스 세레노,
마판단 워드,
필리핀 산 파비안 스테이크

선교사 시절에 배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구독함

저는 선교사 시절에 배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약 25년 간 오 레 리아호나(사모아판)를 구독해 왔습니다. 현재 교회가 부부 선교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우리 회원들이 언어를 배워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해당 언어로 된 잡지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언어로 된 잡지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스웨덴 읍살라의 저희 지부장님은 우리들이 노르드세 난(스웨덴판)이 월간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선 구독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독권 구입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받은 저는 즉시 지부장님께 구독권 대금을 냈습니다. 저희 지부와 스테이크의 여러 회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폴 콕스,
읍살라 지부,
스웨덴 스투홀름 스테이크



편집자 주: 폴 콕스와 사모아, 스웨덴, 기타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 호 32쪽 "폴 콕스-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참조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간증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영원한 사업에 관한 활동과 발전, 그리고 이해력의 증진이 포함된 이 프로그램을 취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듯 풍성하게 축복 받았습니 다. 이 얼마나 크게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듯이, 여러분 또한 그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마음으로 간증할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간증을 분명히 지니고 있듯이, 여러분 역시 이미 간증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와 같은 간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명상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한다면, 주님의 사업에 봉사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일 즉 그분의 사업의 참됨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설 것입니다.”(노변의 모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예배당 재헌납식, 1995년 8월 27일)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명상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한다면,
주님의 사업에 봉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일 즉 그분의 사업의
참됨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과감하게 교회를 지지하십시오. 교회를 수호하십시오.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조직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주님을 화나게 할 것이니,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에게 훌륭한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품안에서 여러분은 안식처의 온기와 위안과 안전함을 찾게 됩니다.”

누가 주의 편이나

지금 보일 때

두려움 없이 분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누가 주의 편이나”, 구찬송가, 51장)

“여러분은 이 위대한 원리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약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에 분명히 맺은 성약과 주님의 성찬을 취할 때마다 새로이 해온 성약의 입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유타 주 프로보, 1996년 9월 17일)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은 사소한 일

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안수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권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신권에 의지해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돌봅니다. 이 신권으로 여러분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권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잘 보호하십시오. 어느 면에서든 이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솔트레이크 슈가하우스 스테이크 대회, 1997년 1월 5일)

가족 관계

“남편과 아내는 하늘의 계획에 따라 동반자로서 나란히 걸어갑니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은 나란히 걷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과 평강과 행복의 가족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 가정의 밤을 갖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경전을 읽어 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 알게 하십시오.”(노변의 모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96년 11월 12일)

청소년에 대한 신뢰

“(청소년)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엄청나게 크고 힘든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종류의 함정, 즉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온갖 형태의 유혹 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늘 복음에 맞추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유 있게 웃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청소년 모임, 워싱턴 디시, 1996년 12월 11일)

덕

“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유덕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불결함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힘과 덕으로써 우뚝 서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그 때문에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은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덕을 함양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굳게 유지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선교 모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995년 12월 18일)

도덕적으로 강직함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불결함과 저속함과 음란함과 그 외의 온갖 사악한 씨앗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이 세상



라이언 케이 켈리

에서 도덕적 표준들을 옹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절대 이 추악한 것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음란 비디오 테이프, 선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질 영화, 성을 자극하는 잡지, 외설 전화방,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건전한 것들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피하듯 이런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것들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이나 갖기 때문입니다.

“불법 마약 반대 운동에 힘을 모으십시오. 지난 4년 간 이것들의 사용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마약류로 인해 중독에 이르게 되면 인생을 망치고, 사회 생활은 파멸에 이르며,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치유가 힘들 정도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 가정의 밤을 갖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경전을 읽어 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대해 알게 하십시오.”





사진 촬영: 페리 간스

“여러분(선교사들)은 …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보다 나은 삶을 제시해 줍니다 … .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 놀라운 원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주님의 집의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이 무모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친절한 태도와 음성이 문자 그대로 생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는 거대 판세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성실함의 대변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악과 담을 쌓고 자신의 특별한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외치는 여러분의 강력한 음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만으로도 저울의 바늘이 진리라는 의로운 방향을 가리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유타 주 프로보, 1996년 9월 17일)

요셉 스미스

“저는 12세 때만 해도 요셉 스미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요셉 스미스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물론경도 읽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보아 왔습니다. 신권의 권세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요셉 스미스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영화로운 그 귀한 신권, 영원한 열쇠를 갖게 되리니…’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그는 때가 찬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마음 깊이 담아 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노변의 모임, 페루 리마, 1996년 11월 9일)

선교 사업

“저는 모든 젊은이들이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든 앞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의 일환으로 기금을 모으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먼저 복음 원리들을 배우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의심하는 분이 있

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성찬식, 프로모토리 지부, 유타 트레몬튼 사우스스테이크, 1995년 10월 15일)

선교사들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

“여러분들은 ... 비회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최상의 삶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모든 남성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바로 자신과 결혼한 여성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모든 기혼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 받고 양육되며 축복 받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임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일 사람들 가정에 존경과 사랑이 좀더 싹튼다면 이 나라 전체의 구조가 변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주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교사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시간이나 죽음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성약을 맺어 성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집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영원하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제시해야 할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선교사 모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1997년 1월 23일)

개종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함

“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개종자는 즉시 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 저는 개종자

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좀더 많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직 그 분이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개종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어떤 일을 부과함으로써 그에 따라 성장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간증은 여러분의 팔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반면에 그것을 쇠뿔줄로 단단히 묶어 보십시오. 아마 갈수록 약해지다가 결국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개종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브리검 영 대학교 기혼 학생들을 위한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유타 주 프로보, 1996년 2월 10일)

교회 재정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건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점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때때로 저는 우리 회원들이 신앙으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 이 교회의 기금은 성스러운 것이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자의 선물이며 가난한 과부의 희생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현명하며 사리 판단이 분명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

회는 영감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분들의 신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1996년 2월 24일)

안식일 준수

“일요일에 물건을 사므로써 안식일의 신성함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런저런 물건을 사는 날이 아닙니다 ... 다른 날에 쇼핑을 해둔다고 해도 손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물건을 사지 마십시오.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가족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 받을 것입니다.”(지역 대회, 유타 주 사우스 조난, 1997년 3월 2일)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주님은 그분의 종들이 말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2. 이러한 인용문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이나 가족들을 강화시키고 축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정한다.

페루 치클라요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직 순종적인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동반자와 구세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여러 번 응답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한 지 1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치클라요 페루 엘 도라도 스테이크 산하의 로스 프로세레스 와드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반자와 함께 그가 이전 동반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구도자와의 약속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로부터 구도자들에 대한 명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한 회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어떤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매우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리에 있는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반자에게 제 느낌을 이야기하며, 그 곳에서 소책자를 나누어 주자고 제안하자 그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그 거리에 있는 처음 세 집의 문을 두드렸으나, 변변히 사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단히 실망한 나머지 제 동반자는 회원의 소개에 의존하는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가 낙심한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동의했지만, 제 느낌을 부인할 순 없었습니다.

그 달 말에, 제 동반자가 이동을 갔고 머후웨이 장로가 저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던 날 밤에는 그를 쉬게 한 다음,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맨 먼저 새 동반자를 데리고 전에 그 느낌을 받았던 거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저를 도와 그 거리의 모든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처음 몇 집의 사람들은 저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영에 이끌려 나아감

로날 나바로 구테 레스

그림: 마크 알 오머



전디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퀘사다 세리타 가족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열어 준 여인은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첫 번째 복음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 토론에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후에 그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 역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고, 우리는 또 다른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한 경험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에 살던 많은 가족들이 토론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는 바깥에 벤치를 놓고 길에서 필름스ٹر립을 상영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초대 교회의 사도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갈 때 신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집

회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네댓 대의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당의 긴의자 네 줄을 모두 채웠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함께 봉사한 지 3개월 만에 약 5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 일지와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우리가 "몰몬의 거리"라고 불렀던 바로 그 거리가 현재 새로운 교회 단위 조직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침례를 주었던 가족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이라는 소식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베루의 이카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니파이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니파이일서 4:6)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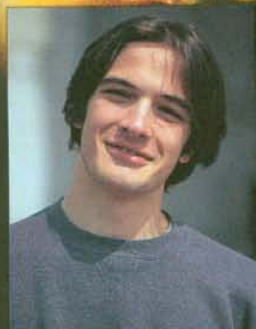
빛의 도시

리처드 엠 롬니
사진 촬영: 저자

프랑스 파리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그 도시의 오래된 별명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사람에게만 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은 흔히 빅 애플이라고 불리우며,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영원한 도시라고 부릅니다.

파리의 별명은 빛의 도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리는 원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요새 둘레와 주요 성문들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따라 횃불이 놓였었다고 합니다. 이 환영의 불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빛의 도시란 말은 또한 문화와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파리의 역할을 나타내는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 흑자들은 밤에 그 도시의 장엄한 궁전들과 기념물들을 비추는 조명 때문에 그 같은 별명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파리는 교육과 문화적인 개혁을 찾는 사람들의 횡보이었습니다. 피터 캐플랭과 프란센 페테로, 루악 고메스와 같은 오늘날 그곳에 사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파리는 복음 진리의 빛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배경: 도시의 유명한 샹제리제 서쪽 끝에 있는 파리의 명물인 개선문

의미를 덧붙임

파리에 사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또 다른 의미를 그 이름에 더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면서, 빛의 도시에서 그들 자신의 횡보, 즉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보고 따를 훌륭한 모범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출신의 청남, 청녀 및 약간의 성인 지도자들이 모여 가진 소그룹 토론의 주제는 바로 그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 신권, 복음을 통해 청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 및 다른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빛을 찾도록 도와야 하는 프랑스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론 신권을 가지는 것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18세인 피터 캐플랭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베푸는 제사이든 성찬 빵과 물을 전달하는 집사이든지 간에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공통의 목표

파리는 수백만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이 거대한 도시에서도, 우리는 아론 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제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피터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저는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기분을 반복해서 또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다시 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15세인 길름 가바는 말합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은 주님의 권세, 곧 그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구에 보내셨습니다.”라고 18세인 엘반 엔 소니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의무는 물론이고 현세적인 의무를 포함한다고 엘반은 말합니다. “성찬이 올바르게 준비되고 전달되는지 확



인하고, 예배당의 구석구석이 청결한지 확인하며,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구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새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며 서로를 돌보도록 그들 모두를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형제

성 우엔 와드에서 집사가 된 지 7개월된 12세인 마르소 라발은 아론 신권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는 와드에서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의 사자로서 그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기가 참석자 수를 세는 것을 돕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에는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13세 난 루웁 고메스는 안토니 와드의 집사 정원희 회장입니다. 그가 아론 신권을 좋아하는 점은 “우리가 진정한 형제”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머지 모두가 그를 돕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활동 회원 두 명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된 집사 정원희는 교사들과 제사들이 많이 도와야 합니다. “신권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그것입니다.”라고 루웁은 덧붙입니다.

또한 신권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한 집사와 연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늘 잘 왔었죠.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해서 우리가 그를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렸어요. 그가 곧 우리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루웁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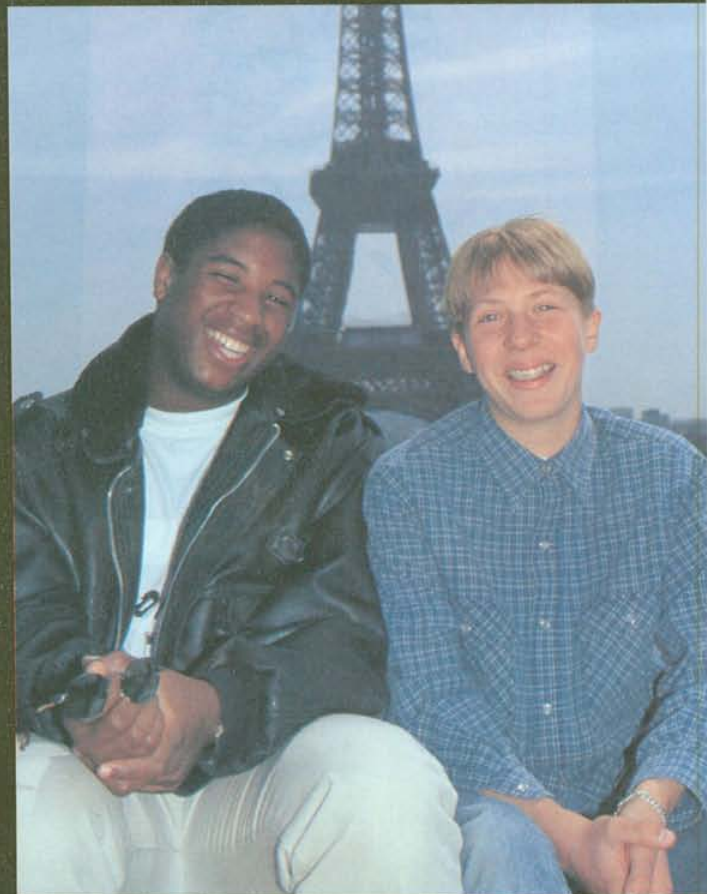
안토니 와드의 월계반에 속한 18세의 프란센 페테로는 청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의 생활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 옵니다.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와드의 청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프란센이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 또한 여러분의 시각과 이해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신권의 축복을 완전히 공유합니다. 가정에 신권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신권의 권세로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은 제가 세운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르틴 페테로는 프란센의 언니입니다. 또한 그녀는 와드 청녀 회장입니다.

“이 곳에 나오는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을 지지해 주거나 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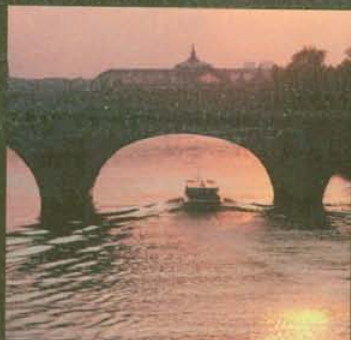
테러다 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
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간증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
랑합니다. 그들은 항상 스테이크 대회, 청소년 대
회에 참석하고, 언제나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활동을 계획합니
다. 그들은 언제나 환대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
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
들은 아주 유혹이 많은 파리에서조차 매우 강하
게 남이 있습니다."라고 마르틴은 말합니다.

빛을 찾음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도시에서조차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피

하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은 밝
고 따뜻하며 반가운 것입니다. 고대 파리 성벽의 햇불처럼 복음의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
하는 안전한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
니다.

그런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
름은 바로 시온입니다. □



에펠탑 앞에 있는 엘반 엔 소니(왼쪽 위)와 길름
가바와 마르소 라발(왼쪽)은, 아론 신권의 형제애
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경: 상제리제 동쪽 끝에 있는 콩코드 저택의
분수. 위: 파리를 통해 흐르는 세느 강의 많은 다리 중 하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로버트 제이 매튜즈

우리는 십계명 중 아홉 번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두려움, 불안, 의심, 고뇌 및 속임수의 결과인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청년은 직장에 1년 남짓 몸담아 왔다. 그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사 중 한 사람 밑에서 정식 직원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상사와 같이 자신들의 관리자와 만나면서 상사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관리자가 청년이 애써 준비한 보고서를 여기저기 트집잡을 때, 보고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아곱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감추었다.

항목을 바꾼 장본인인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로 했던 것이다.

청년은 상사 쪽을 보면서 “천 처음 지시한 그대로 제출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가 대꾸했다. “난 읽은 기억이 없는데...”

청년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그 날 오후 늦게 상사가 지리틀 비우자, 청년은 부서 내의 모든 보고서 사본을 철해 둔 서류함으로 갔다. 문제의 사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순서대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유독 자기 것만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 날 이후로 그 청년은 자신이 작성한 것은 예외 없이 사본을 두 별씩 만들어 잘 챙겨 두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와 협조하기를 했으나, 비교적 영향력이 적더라도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상사 밑에서 일할 기회가 닿으면 주저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그의 삶은 거짓 증거를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6)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기 위해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가운데 아홉 번째 계명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홉 번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계명들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계명이 무시될 때 평안, 행복, 안전, 신뢰, 그리고 평온함은 위협에 빠지게 된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붙잡힐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을 슬쩍 변경시키는 것쯤은 괜찮다는 부정적인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어느 한 개인에게 벌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튼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은 — 거짓말은 그 한 측면에 지나지 않음 — 사람들의 영혼을 썩으며,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통의 유대감이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계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처음의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다섯 번째 계명은 —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

라는 내용 — 우리들이 하늘 부모를 공경 하듯 지상의 부모도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는 질문에 대해 구세주께서 답하신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그렇듯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예사로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아담 에스 베니온 장로(1886~1958년)는 이렇게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생명, 도덕, 재산 등과 각각 관련 있는 살인, 간음, 절도 등을 사지 증거하는 일보다 더 심각한 범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짓 증거를 하는 일이 그러한 범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아홉 번째 계명,” 오늘날의 십계명(1955년), 134쪽)

거짓 증거에는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

는 것도 포함된다. 악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도 나와 있듯이, 중상이나 인격 살해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삼비라와 아나니아는
주님의 권능 있는 종인 베드로를 속이려
함으로써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그를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지갑을 훔치는 자는 쓰레기를 훔치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며 또 그의 것이었고,
수 많은 이들의 노예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서 훌륭한 이름을
훔쳐 가는 사람은
본인 자신은 전혀 풍요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훔쳐 가는 것

이로 인해 나는 정말 가난해지겠지.
(3막 3장, 157~61 대사)

오직 사실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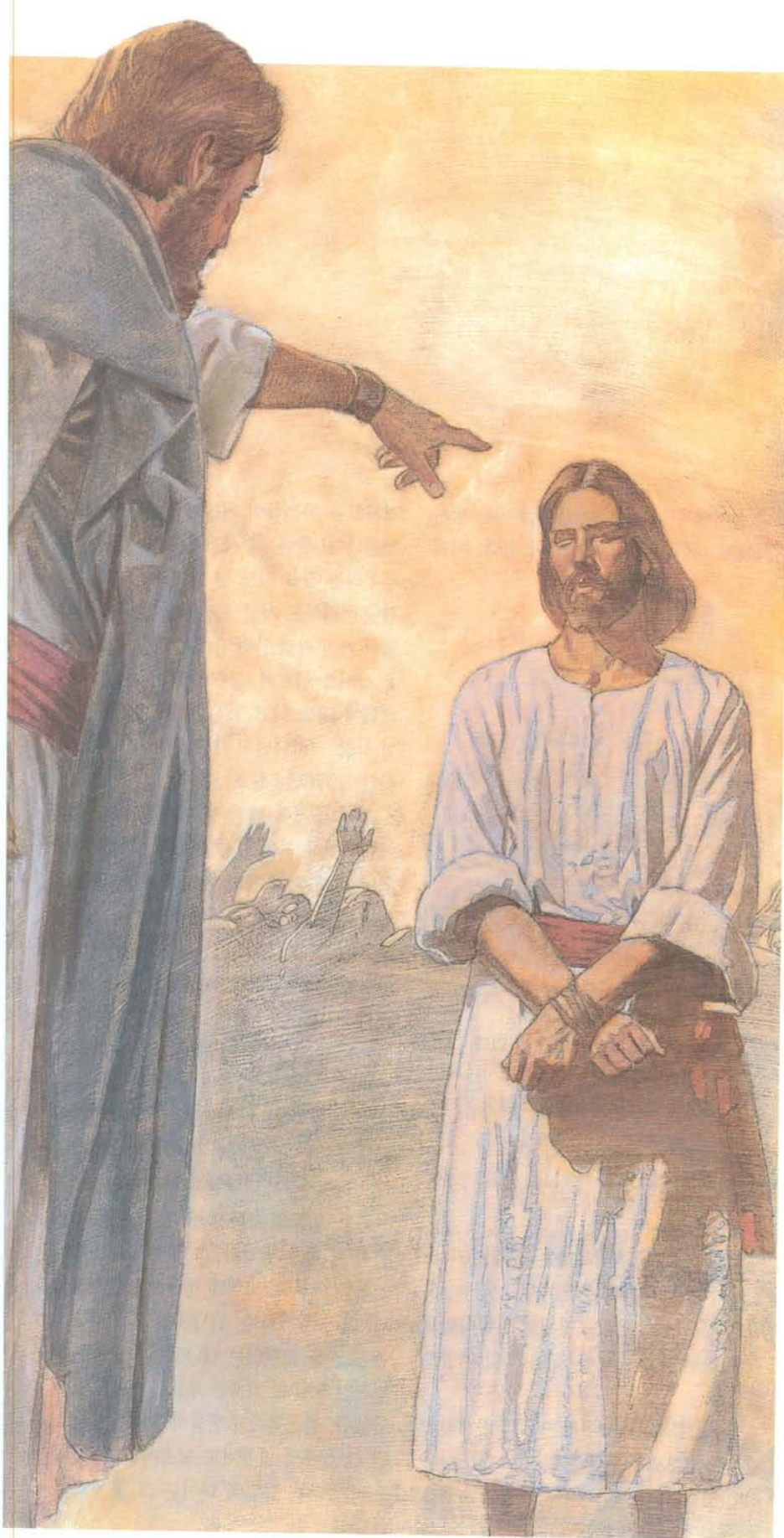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는 계명을 그저 거짓으로 꾸며 내지 말라는 금기 사항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처럼 진리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도록 요청받을 때마다 늘 정직하고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위 증거를 대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일 등도 모두 다 이 아홉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당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사도행전 2:44~45) 하던 때였다.

사도행전 5장 1~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입을 맞추어 소유물을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2절)었다. 이들의 속임수를 눈치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4절)

아나니아와 삼비라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성약을 맺었던 간에, 남편과 아내가 거짓 증거를 했을 때 그 성약은 이미 깨어진 것이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에 관련해 한 가지 비극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것은,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이 범한 계명을 만든 바로 그분께 거짓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이다.

의 의도는 주님의 권능 있는 종인 베드로를 속이는 데 있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은 크게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곧 죽고 말았다. 물론 거짓말을 한다고 다 이처럼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며, 주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신 것이 분명하다.(주께서 말일성도들이 맺은 이와 유사한 성약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려면, 교리와 성약 42편 30~34절, 82편 11~21절, 104편 1~8절을 참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아홉 번째 계명은 성약을 깨거나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 과장, 악한 쪽으로 이해하는 것, 날조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허위, 그리고 어떤 경우든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도적인 설명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분 혹은 반쯤만 말할 때 이 역시 거짓말에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좀더 정확하

게 인식하도록 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숨겨 둬으로써 그들이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거짓 증거를 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린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감추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 간 다음, 형제들은 그의 옷을 찢어 염소 피로 물들여 아버지에게 가져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창세기 37:32~33)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이처럼 상황을 잘못 알고 지내게 만들었다.

“죄니라”

어떤 형태로든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제아무리 그 상황을 정당화시킨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 또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17) 이처럼 누군가가 중상 모략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을 때, 또는 의롭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 일이 행해졌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 성서에 근거해 볼 때 상처를 입은 당사자에게 나아가 그를 변호해야 한다. 이러



거짓말은 명예를 손상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사회 생활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거짓말은 무고한 한 여인을
27년 간이나 옥살이하게 했다.

한 경우에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고든 비클리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최근 TV에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 목

격자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거짓 증거를 일삼아 온 사람들의 거짓 허로 인해 명예가 손상되고 마음은 상처를 입으며, 경력엔 금이 가고 만사레들에 대해 알고 있진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 엔사인, 1976년 5월호, 61쪽)

거짓 증거에 대한 실례는 현대 사회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다. 중고 자동차의 주행 거리 표시 계기를 돌려 놓음으로써 얼마 안 달린 것처럼 속여 차 값을 높게 부르는 것, 할인표를 사기 위해 어린이의 나이를 속이는 것, 시험 시간에 몰래 답을 훑쳐 보는 것,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수고료를 부과시키는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내 친구가 늘 이용하던 한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영업소에서 무료로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쿠폰으로 오일을 교환한 며칠 뒤 그에게 청구서가 발부되었다. 그가 항의하자, 담당자는 그 쿠폰으로 오일을 교환하는 데 드는 수고료는 안 받지만 오일 값 자체는 무료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설명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내 친구는 속았다는 느낌에 다시는 그 곳을 찾지 않았다.



광고인들과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조차도 종종 말을 조작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한다. 가장 흔한 실례 중의 하나가 길고 전문적이거나 이해가 잘 안가는 특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례보다 의미를 과장하는 경우이다. 말을 포장하는 것으로는, 활자 크기를 조정하는 것, 주제와는 무관한 사진이나 삽화 또는 그릇된 차트를 사용하는 것 등등이 흔히 있는 속임수이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증거를 하는 이와 같은 의도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

의 말을 “옳다 옳다”나 “아니라 아니라”(마태복음 5:33~37 참조)로 국한시키라고 명하신 것은 아마도 그러한 모든 교활한 속임수와 거짓 증거들을 차단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간단 명료한 말은 우리를 타인에게 쉽게 이해시키며, 논점의 혼돈을 피하게 하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한다.

잔고도 충분하지 않은데 수표를 발행한든지 지킬 의사도 없으면서 헛된 약속을 하는 행위 등은 주님을 화나시게 하고 정직한 영혼을 멀리 쫓아 버릴 것이다. 말일성도들의 행동의 표준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현대 사회는 언어가 조작되는 일이 빈번하여, 속임수에 대비해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씬 높다. 그것은 우리에게 악의 모양까지도 피할 것을 요구한다.(데살로니가전서 5:22 참조)

다음은 말을 데리고 가게를 다녀온 한 말일성도 어머니가 얻은 교훈에 관한 이야기이다. 상점 선반에 있는 머리띠 문치 가운

데 원하는 색상으로만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뭉치는 열었다가 다시 봉해 두어도 상관없었다. 이 어머니는 그 꾸러미에서 원하지 않는 머리띠를 빼고 다른 꾸러미에서 좋아하는 색깔의 머리띠와 바뀐 넣었다. 두 꾸러미의 머리띠의 번호와 질은 똑 같았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머리띠를 구입한 뒤 며칠 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 자신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거로 사실을 조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겸손한 마음으로 딸에게 부정직한 교훈을 가르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 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칠십인 명에 회원으로 있는 제이 리 차드 클라크 장로는 어떤 형태의 속임수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모사이아서 18:8~9)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모범으로 보인 이 증거는 모두 매일의 일상 생활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리고 다시 니파이인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6; 모사이아서 13:23)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복음 원리에 참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빛을 들어”,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80~81쪽)

거짓의 울무에서 벗어남

거짓말의 중대한 결과는 단지 속은 사람이 입은 피해나 고통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거짓말은 속인 당사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그로부터 자존심을 빼앗아가며, 진실과 오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힘을 둔화시킨다. 자주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조차도 점차 이것이 진실인 양 믿게 될 수도 있다. 물론경에 나오는 반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그러한 경우이다. (엘마서 30:52~53 참조)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훔칠 수도 있다. 진리의 고귀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남의 소유권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로 연결된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 내는 자마다” (요한계시록 22:15)—영육에 있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별의 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1:8; 니파이서 9:34; 교리와 성약 42:21; 63:17; 76:102~106 참조)

어떤 회원이 자신은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죄로부터 멀리 있으려 하지만 어떤 때는 별 저항 없이 쉽게 죄의 울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에게서 오토바이를 한 대 샀다. “6백 달러를 내십시오. 그럼 4백달러를 주고 샀다는 계산서를 써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세금을 덜 내도 될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산 사람은 정직하게 구입가를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판 사람이 그럴 의도가 없으니 구매자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정확한 구입가로 납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만큼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이름이 납세 신고서에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판매 영수증으로 납세 신고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직접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거짓을 두둔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를 산 사람은 판 사람을 찾아가 정상대로 판매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 돌아왔다. 즉 정도에 상관없이 일단 속임수를 묵인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그 속임수의 부속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십계명은 모든 사회에 필요한 윤리적 기반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복음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십계명의 윤리적 내용 자체가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관해서도 진실만을 증언하기로 서약하듯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늘 진실되게 증거하기로 맹세한다.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고통스런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왕국에 관해 우리가 배운 바로는, 거짓이나 허위는 어떤 것이든 그분께 용납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은 은폐시키지 않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사실을 조작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께 용납된다. 그와 같은 모든 행동들은 그분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못하며,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주님 즉 우리의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속하려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야서 18:9)야 한다.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6)

백 번째 양

제임스 에드워드 피더슨

그림: 미네르바 타이처트, 잃어버린 양을 구함, 그림: 제리 톰즈

우리는 형제를 돌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를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던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조그만 방앗간 마을인 포트 엘버니의 그 봄날 저녁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상호향상회에 참석해 말일성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오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다정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사교적이질 못해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집회소의 로비에 모여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화에 별로 끼여 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면서, 자매 선교사 둘이 한 소년을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언뜻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 동네 아이라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동반자가 옆에 서서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튼 자매 선교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 정말 신나는 일이 있어요. 우린 이 소년과 이 소년의 가족과 함께 여러 달 동안 만나고 있는데, 그가 오늘 처음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모두 이 소년을 반겨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사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소년에게 자리를 조금 비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거북하고 불편했던지 내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들과 비교해서 옷차림은 초라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우리는 점차 어른들이 늘어나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워 지자, 우리들끼리 좀더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온 그 소년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아이가 들어서서 혼자 현관문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화장실에서도 그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몇 분 후에 모임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농담을 하며 화장실 밖으로 줄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밖에 이튼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그녀는 화가 났다고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울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고 끼워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었나요?”

“그애가 어디로 갔는데요?” 내가 바보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죠? 다시는 그 소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들어서서 동반자와 함께 그 소년을



찾으러 건물을 나섰습니다. 우리 동네로 가려면 5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꾸중에 기분이 상한 우리는 풀이 죽어 조용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매우 동요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그 날 밤에 나는 로렌스 형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대학을 휴학하고 곧 선교 사업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로렌스 형의 충고를

존중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니?” 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자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튼 자매가 이젠 너무 늦었다고 했어.”

로렌스 형은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눈치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형은 다소 회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이 지금쯤 집에 가 있을 거야. 내가 전화해

볼게.”

5분 안에 로렌스 형은 그 소년의 주소를 알아냈고, 우리는 함께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소년이 살고 있던 불빛이 거의 없는 동네로 걸어 들어갈 때는 주위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형이 함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몰라 매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이 다 벗겨진 낡은 집에 다다랐습니다. 형이 가로등 아래에서 번지를 확인하고는 그 집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가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혼자 걸어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로렌스 형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용기를 잃을까 두려워 나는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은 뛰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년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한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의 아들이 집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개한테 무슨 불일이 있는데?” 그녀는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맥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우리가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다시 교회에 가자고 초대하고 싶어서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자기 아들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혐오의 빛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나를 무시한 채 그녀는 로렌스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로렌스 형이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거듭 알리려고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전 아이들이 몹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 그들을 압니다. 대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형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로, 내 행동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자기 아들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군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올까?”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로렌스 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이 후회했고, 다시 되돌리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습니다. 배운 모든 단계대로 행했음에도 왜 주님께서 나의 회개를 알아주지 않으시고 나의 죄의 짐을 덜어 주시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내 마음속에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해야 할 바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시도해 보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다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직까지도 나를 몹시 부끄럽게 하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나는 기이한 방법으로 아직도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

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요한복음 10:11~13)

인정하고 싶어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삯꾼처럼 달아났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충분히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시도 한 후에, 나는 그 소년을 이리에게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을 기꺼이 치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소년을 마음속에 그려 보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처럼, 나는 목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내 형제요 자매로 봉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니파이인들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니파이삼서 9:13)

“거룩한 용서의 유향”

죄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칠십인의 로버트 엘 백맨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몸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로 인한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며, 상처 받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의 유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0쪽)

옛사람들은 방향성 향료인 유향(balm)을 사용해 병을 고쳤다. 주님의 속죄는 치유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고치는 유향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는 성약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 진정한 회개를 통해 - 용서라는 거룩한 유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요구한다. 즉 죄에 몰든 행동이나 말 또는 생각을 버리고, 의로운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요구하며 보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신권 지

도자에게 고백할 필요도 있다.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중대한 죄를 고백했으나 “저는 제가 ...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한 여성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킴블 대관장은 그녀의 말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셨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님과 이 여성은 함께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에 관한 경전 말씀을 찾아 읽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12장 31~32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성구에서 주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녀는 새 희망에 젖어 킴블 대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 그녀는 “밝은 눈과 가벼운 말걸음으로 희망에 찬 모습을 하고 새사람이 되어”(용서가 낳는 기적, 305쪽) 돌아왔다. 그녀는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통한 치유를 받은 것이다.

매일 회개함

대부분의 경우 회개한다고 극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미세하고 일상적인 변화를 포함할 때가 많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율법을 준수하며, 날마다 의로운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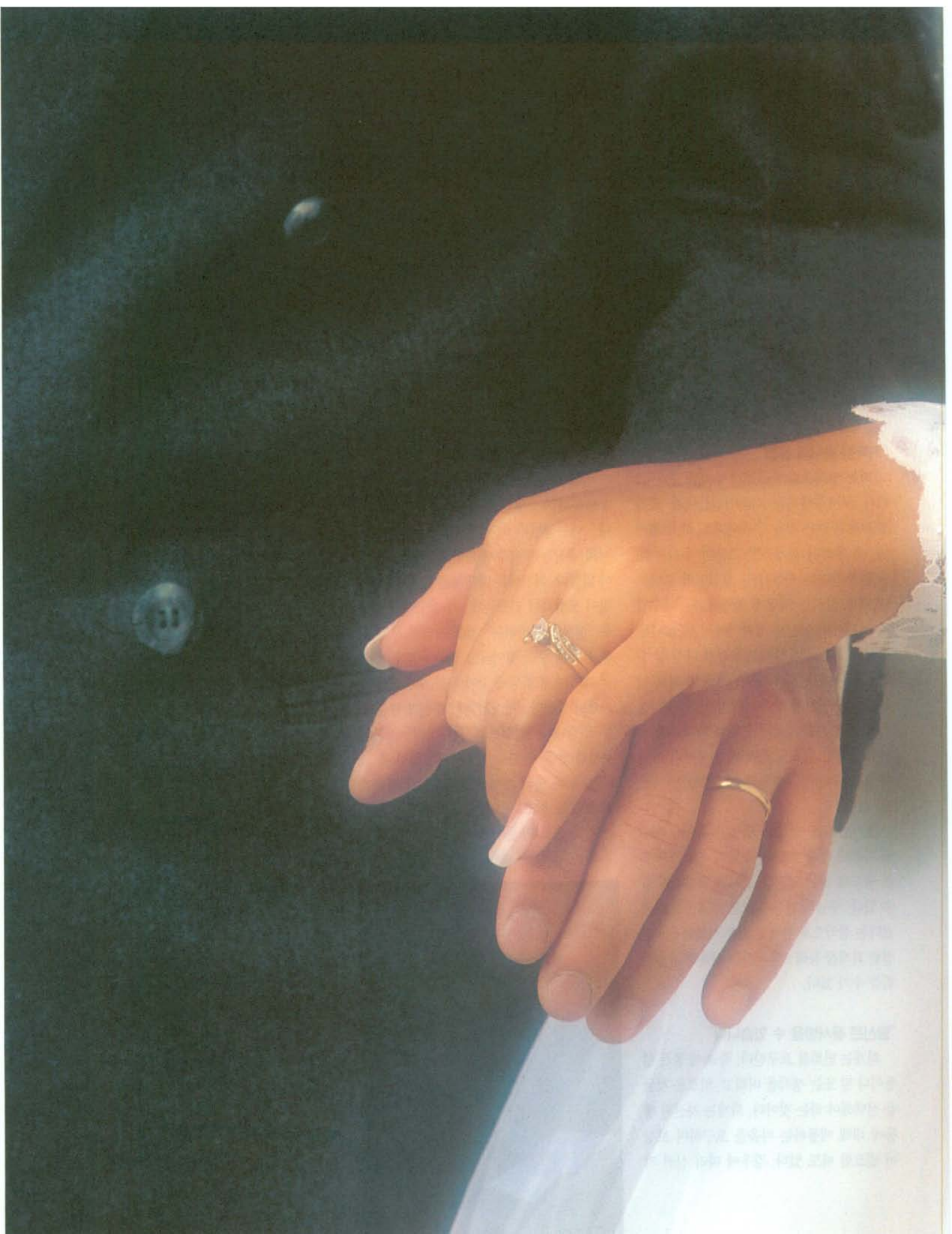
회개는 거룩한 은사이다. 회개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데 있다. 아론이 라모나이왕의 아버지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자 왕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어찌해야 그대가 말하는 영생을 얻겠느냐? ... 이 큰 기쁨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두를 버릴 수 있으며...”

아론은 그에게 신앙을 행사하며 회개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모나이왕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포기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님이시여 ... 당신을 알(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습니다.” (엘머서 22:15~18)

죄는 크든 작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구세주가 계시다. 그분께 나아와 회개를 계속할 때 그분은 우리 헌물을 받아 주시며 치유해 주실 것이다.

-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영적인 치유로 연결될까? □





모든 결혼 생활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부부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할 때 부부는 인생의 시련을 참아 낼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교회 잡지는 독자들에게 복음이 결혼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독자들의 응답 가운데 일부를 선정한 것이다.

성전 결혼에 기초를 둬. 제 남편 존은 고등학교 대리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중에 결혼이 주제로 나오자, 학생들은 남편 나이쯤이면 이미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여 살면서,

전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봉 의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성전 제단에서 맺은 성약들을 기억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곤란에서 빠져 나가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내릴 때 주님과 함께 내립니다.

성전에서 한 약속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흠을 잡더라도 우리끼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매일 저녁 설거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리



많은 부부들이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결혼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함

슬슬 세 번째 아내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남편이 자녀들로 하여금 의붓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은 남편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혼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남겨 두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결혼 생활은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그 분들이 자신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셨으며, 우리 부부도 자녀들에게 그와 똑같은 모범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지켜 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전 결혼을 했고, 정규적으로 성

지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가길 고대합니다. 부부로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정에 이르러, 서로가 서로를 늘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 마리아 베이츠와 존 베이츠

경전을 공부함. 어느 봄날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눈물로 저를 맞았습니다. 즉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교회 활동 때문에 몇 년 전 저와 관계를 끊으셨던 부친이 전화를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친은 아내에게 제가 남편으로서 좋은 사람이 못됨을 확신시켜 주려 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까지 하시다니 정말이지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부친께 전화를 걸어 분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진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이를 뒤에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아내와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대신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고 "기도에 앞서 당신이 먼저 경전부터 읽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니파이삼서를 펴서 읽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2:44)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구세주께서 제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울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그녀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성구를 읽어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당신이 가장 훌륭한 분이 되었으면 해서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랑스런 아내는 복음 원리의 빛이 제 마음을 통과해 비추도록 경전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진부친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를 도울 때, 복음은 우리 결혼 생활에 굳건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

영의 은사를 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은 여러 면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저는 감동됨을 방문하라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 저에게 남편과 명확히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께서 상대 배우자의 마음은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며, 필요시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알려 주시길 간구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현재보다 훨씬 뛰어난 이해력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

주님을 신뢰함. 저는 성전 인봉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온통 제 마음을 감싸고 있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분과 환희와 긴장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기 전 성전장님이 이제부터 우리가 행할 일의 중요성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시련이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그 말씀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 아내와 저는 10대를 맞이한 아이들을 기르느라 찼찌매고 있고, 예전의 성전장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주위를 거닐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막내아이가 귀가

하길 기다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텔레비전 세트 위의 시계 바늘은 녀석이 귀가 시간을 어길 것임을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 45분을 가리키면서, 저는 아들 녀석이 어디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쳐서 길거리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아들이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냉전은 불과 몇 분 간이었는데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후일 아내와 저는 아이들 삶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악몽 같은 기억과 그후로 있었던 10대 아이들과의 마찰을 통해 우리는 차츰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쁜 평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녀의 영원한 복지에 대해 깊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워 집안의 문제를 감추고 덮으려 했던 부모에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집안에 비협조적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평을 뒤로하고 대신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부모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계적인 성장 과정을 수립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

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장 과정이 좀더 높은 수준의 복음 이해력을 갖게 하며, 구세주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더욱 굳은 결심을 하게 함을 체험했습니다. — 론 헨슨

복음 위에 세움. 시험과 시련의 광풍으로부터 안전한 결혼 생활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험스런 결정의 결과나 “도대체 왜 우리가 결혼을 했지?”라고 후회하는 데서 오는 풍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 결혼 생활을 파멸로 이끌 힘을 갖고 있기에, 계명을 준수하고 이것을 결혼 생활의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꼭 해야 하는 일 목록에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항목을 올려놓았습니다. 날마다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사랑에 찬 말과 신속한 용서와 사려 깊은 감정 표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갑니다. 아침 시간에는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것에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결혼이라는 집”을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붙들어 둘 닻을 갖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라.”(니파이삼서 14:25) — *손드라 이블러 에거*

참된 원리들을 공부함. 우리 둘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서로 고립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장로 두 사람을 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서 아내는 장로들이 안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있을 기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간의 사랑을 건전하게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 단둘만 있을 기회를 찾아야 한다.



위: 사진 촬영: 메트 라이머;
아래: 사진 촬영: 제리 칸스



쓰럽게 생각되었나 봅니다. 저는— 비록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결국 우리는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된 후 우리 두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고,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이더서 12:27 참조). 이러한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 우리는 계속 함께 있으면서 올바른 원리들을 배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훨씬 뒤 감독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여러 사람들과 그간 아내와 제가 연구했던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경전에 나오는 원리들, 교회 잡지에 실린 기사들, 읽었던 책, 그리고 복음 원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들은 이야기 등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복음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에 모두 유익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 거리들과 경험으로 축적된 이야기들이— 경전의 통찰력과 합쳐져— 아내와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로버트 앤 알렌

배우자와 결합함. 결혼 후 몇 달도 채 안 돼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을 뒤로하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께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런 저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대로 배우자와 “결합하며” “다른 아무”(교리와 성약 42:22)와도 결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합”이란 한결 같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며, 교분이 굳게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신혼 초에는 군인 생활과 상대방에 대해, 그리고 오래 떨어져 지내는 생활, 곧 태어날 아



부부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인생의 풍량을 퇴치시킬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기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에 부딪혀 서로를 꼭 붙들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삶의 풍랑을 헤치고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혼 생활과 그 목표인 승영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물질적인 것, 출세, 혹은 자선 사업 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늘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회 부름과 관련된 것들조차 잠시 옆으로 제쳐 두기도 합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짧을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차를 몰고 지도자 모임에 오가는 것, 혹은 자녀를 데려가지 않고 둘이서만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것 등과 같이 다른 일들과 결합 때도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있는 기회를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그들이 없는 기회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밖에 둘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주에 한 번 테이트를 하라는 권고는 영감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꼭 집 밖을 벗어나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만 없으면 됩니다. 이 때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의 사랑을 건전하게 살아 숨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승영을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위협하는 온갖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된 것은 서로 굳게 결합하여 하나님께 봉

사하라는 권고를 따르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 *베키 엘 루드로우*

기도함. 새로 태어난 아기 채드가 아내의 시간을 차츰 빼앗기 시작하자 저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또한 채드에게도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생기면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때로 저는 아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해 받고 싶다는 저의 마음이 결혼 생활 밖에서 우정과 정서적 지원자를 찾고 싶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다호 보이즈 성전의 인봉실에서 사랑스런 아내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곳에서 주님의 영은 우리들 결혼의 성스러움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이들과의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결혼 생활을 돕는 도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굳건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 *스콧 에이 칼슨*

감사하며 용서함.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무척 지쳤습니다. 집은 엉망이었고, 막 젖을 땀 녀석은 제 동생을 귀찮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의논을 하다가 얼마 안 가 말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서로 감정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저는 각각 탄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고, 남편과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저 공허하고 냉랭하며 말없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는 온통 눈물 바다였고, 저의 생각은 남편과 사이 좋게 지냈던 지난 6년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은 거실에 쓸쓸히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다시 정감어린 분위기가 형성되길 원하는 마음은 제 쪽이 훨씬 더 컸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남편과 우리의 결혼과 성전 성약과 그 외 모든 축복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눈물이 더 많이 쏟아졌고, 저는 이미 남편 곁에 무릎꿇고 앉아 그를 살며시 깨우고 있었습니

다. 남편은 저를 안으면서 "울지 말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으며,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곧이어 온화하고 부드러운 영이 온 집 안을 다시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마음으로 그분 음성을 듣고 겸손해지게 인도하셨고, 남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축복 받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편과 저는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지려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좀더 인내하려 애씁니다. — *켈리 스미스* □

폴 콕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사진 촬영: 마크 에이 필브릭/ 브리감 영 대학

폴 콕스는 1987년의 어느날 아침 불도저의 굉음을 듣기 전까지 만 해도 그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던 서사모아 팔레알루포의 마을 가까이에 있는 열대 우림이 파괴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전혀 알 아채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새 학교를 지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 1만 2,000 헥타르가 넘는 산림 부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학교를 짓는 일은 사모아 정부가 요구 하는 것이었지만 그 경비는 마을에서 대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벌목꾼들이 삼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를 떠나 스웨덴 울살라에 있는 어느 대학교 환경학 교수겸 하와이의 국립열대식물원 원장의 일을 맡고 있는 콕스 형제가 설명한다. "사실 그들은 벌목꾼들을 10년 동안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삼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몇몇 인용문들은 브리감 영 대학교 공보부의 줄리 위커가 폴 콕스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허가를 받아 게재함.)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 겠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콕스 형제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삼림을 보호한다면 제가 학교를 지을 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저도 그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 습니다."

폴 콕스는 사모아 팔레알루포 시 민들이 그들의 귀중한 열대 우림 (오른쪽)을 벌목꾼들에게 팔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아래)를 재정 지원하 는 것을 도왔다.







민간 식물학자인 콕스 형제는
의학적 성분을 시험하기 위해
식물과 나무들의 표본을 수집
한다.

그러나 돈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을 추장들 대부분이 콕스 형제를 의심스러워했다. 그러나 대추장 푸이오노 세니오는 그를 믿었고 콕스 형제의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추장들을 설득했다.

추장들이 승인했을 때는 벌목꾼들이 이미 숲을 남김없이 벌목하고 있었다. 세니오 추장은 수 킬로미터를 달려 내려가서 마체트(덤불을 자르거나 무기로 쓰이는 넓고 무거운 칼)를 손에 들고 벌목꾼들을 쫓아냈다.

그 다음날 콕스 형제는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지를 받아 사모아의 수도인 아피아로 날아가 학교 건설에 필요한 대출금의 지당 증서에 서명을 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1만 2,000헥타르의 열대 우림을 보존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우리의 집과 차를 판 후에도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순간에 결혼하길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바라가 제 손을 잡고 '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기회를 얼마나 자주 갖겠어요?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콕스 형제와 자매는 유타에 있는 그들의 집을 팔 준비를 시작했지만 곧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콕스 부부가 실제로 그들의 집과 차를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모아 주었다.

콕스 형제는 팔레알루포 주민들과 그 삼림을 50년 간 보호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식량과 약초를 모으고, 집과 키누를 만드는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숲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벌목꾼들이나 다른 개발 사업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숲에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었다.

지구를 보존함

콕스 형제는 팔레알루포의 열대 우림을 구한 후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1997년, 국제 사회는 그와 세니오 추장에게 그들이 팔레알루포에서 이룬 업적을 기리며 환경 보전주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여했다. 콕스 형제는 그의 상금의 일부로 원래의 50년 보존 협약 기간 이후에도 팔레알루포 숲을 영구히 지킬 자금을 마련했다.

또한 그는 1997년까지 해양생태학 재단을 설립했다. 해양생태학 재단은 다른 태평양의 섬마을들이 학교들과 수도 시설, 보건 기구, 그리고 다른 일들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숲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으로써 '한 번에 한 마을씩 세계를 구하기' 위해 일한다. (샤론 엠 헤다에 의해 "열대 우림을 보존하는 것이 교수님의 중점 사항", 데저렛 뉴스, 1997년 4월 14일자에서 인용.)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작은 마을들에서 실행해 온 소규모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마을의 소수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고 있으며, 그것은 내 시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콕스 형제가 말한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이곳을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팔레알루포 숲은 작은 곳입니다. 사모아란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보존함

환경 보호를 돕기 위해 일하는 가운데 콕스 형제는 또한 한 가지 가족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부모님은 그들에게 주님과 그 창조물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폴의 아버지는 국립 공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야생 어류 생물학자였다. 두 사람이 다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라고 폴은 말한다.

오늘날 콕스 형제는 자신의 가족에게 그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과 같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지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이들은 숲과 동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일종의 가족 사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의 방식들을 배우는 것을 즐기고, 특별히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 회원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즐겨워합니다.”

폴과 그의 아내와 다섯 자녀들은 그가 사모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하와이와 스웨덴에서 일해 오는 동안 함께 옮겨 다녔다. 스웨덴에서 그는 읍살라에 있는 대학교에 초청 받아 2년 동안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환경학부의 그는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 교수로서 재직중에 있다.

신앙을 보존함

읍살라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도록 초청받은 것은 학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또한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했다. 폴은 스웨덴을 방문하는 동안 자신의 표준에 대한 결심을 시험받은 적이 있었다.

콕스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국왕과 왕비가 주최한 한 호화 만찬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왕비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왕비를 위해 축배를 제의했다. “그 방안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술잔들이 높이 올랐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잔을 집어 들어 올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축배가 끝난 후 내가 자리에 앉자, 여왕이 몸을 기울여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주 지혜로우시군요.’ 그것은 8년 전의 일이었고 그들은 나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참되다면,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콕스 형제는 과학적 지식의 추구에 많은 시간을 바치긴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생의 또 다른 유형의 지식, 즉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문과 복음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앙과 이성 사이 좋게 병존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을 얻으면 간증을 잃게 되고 너무 많이 기도한다면 지성을 잃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렉 힐, “국제적인 갈채도 B.Y.U. 과학자의 생애에서의 우선 순위를 바꿔 놓지 못함”, 처치 뉴스, 1995년 5월 20일, 6면에서 인용) 그러나 콕스 형제는 인간은 훌륭하게 키운 간증과 훌륭하게 계발된 지성을 함께 지

콕스 형제는 수년 동안 함께 일해 온 많은 사모아인들과의 두터운 우정을 즐긴다.





콕스 형제는 전통 의학 연구를 통해 사모아 치료사들의 유산을 그들의 전문 직업이 사라지고 지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보존하기를 모색했다.

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인생은 니파이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니파이이서 9:29)

문화를 보호함

학문에 대한 이런 균형 있는 접근은 콕스 형제가 사모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커다란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아에 와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아의 폐쇄가 스테이크 부장이며 서사모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학 학장인 나물 라오울루 타바나 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폴 콕스는 다릅니다. 그는 이 곳에 와서 사모아인처럼 마루 바닥에서 자고, 사모아인처럼 먹고 말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냅니다."

1973년부터 사모아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콕스 형제는 그 문화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았다고 사모아 아피아 성전장단 제 1보좌인 다니엘 베덤 형제는 회상한다. "콕스 형제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사모아인들이 무엇을 내어놓든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다 먹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간 마을은 사바이였는데, 익힌 브래드프루트(구우면 색깔과 질감이 빵과 비슷한 과일) 하나를 심지어 씨까지 통째로 받았습시다.

"그는 그 과일 안에 사모아인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콕스 형제가 먹는 동안 마을 꼬마들은 웃고 있었고, 그날 그가 전도하러 나가자 모두들 그들을 '풀

을 먹는 팔랑기(백인)'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형제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베덤 형제는 회상한다.

그의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지부장이기도 했던 한 추장은 아무 뜻도 없는 음절들의 연속처럼 보이는 말로 저녁마다 짧은 콕스 장로를 괴롭혔다. 점차로 풀은 그 추장이 그에게 매우 형식적인 추장들 간의 존대말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셰리던 알 셰필드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소망이 계기가 된 식물학자의 연구", 처치 뉴스, 1992년 9월 5일, 7) 오늘날, 추장들의 존대말로 사모아 지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많은 문호를 열

게 되었다.

타바나 부장은 콕스 형제가 사모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것은 그가 사모아인들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콕스 형제는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족한 문화와 환경, 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당신은 훌륭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콕스 형제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해 훌륭하게 노력을 기울인 후 팔레알루포 주민들은 전통적인 의식에서 풀 콕스를 사모아의 대추장으로 추대하는 영예를 선사했다. 사모아의 가장 높은 직함 중의 하나인 니파누아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니파누아는 숲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이 전투에서 싸우는 것을 도우며,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해낸 사모아의 전설 속 여신이다. 그 직함은 적합해 보인다.

질병 치료에 관한 지식을 보존함

콕스 형제의 문화적인 이해는 그들의 민간 식물 요법(ethnobotanical) 연구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1984년, 어머니가 암으

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식물이 질병 치료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해 하반기에, 콕스 형제는 사모아의 민간 요법사들의 전통 의약을 연구하기 위해 서사모아로 이사했다. 콕스 형제는 모든 유형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식물을 이용하는 민간 요법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의학적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민간 요법 전문가들이 세상을 떠나고 열대 강우림 식물들이 모두 멸종되어 버리기 전에 그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콕스 형제가 밝혀 낸 많은 식물군들이 질병에 대한 항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모아 민간 치료사들이 수세기 동안 바이러스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오고 있는 나무껍질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연구자들은 국립 암 연구 기관이 건강한 세포 내의 에이즈 바이러스의 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발견된 프로스트라틴을 추출해 냈다. 프로스트라틴을 추출해 낸 그 나무는 사모아의 한 고립된 지역에서만 자라는데, 그 지역은 벌채되기 직전에 있었다.

만약 프로스트라틴이 상용화된다면 사모아인들이 그 이익의 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원주민들의 권리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창조물에 대한 외경심의 보존

콕스 형제는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을 발견하는 일보다 숲을 보호하는 일에 더 깊은 동기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지구를 돌보는 것이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골몬서 9:11)에 대한 외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결작품인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 화가를 사랑한다면 그 그림을 자르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콕스 형제는 설명한다.

풀은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세상은 신성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숲을 가로질러 걸으며 저 높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화권 안에서 이 경건함을 회복시

키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세상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지구와 창조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들에 대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있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거나 우리의 집과 소유지를 청소하여 기분 좋고 아름답게 만든다거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신중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장의 동물들을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 지역의 쓰레기를 줍고 깨끗이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푸이오노 세니오 추장(오른쪽)의 도움으로 콕스 형제는 열대 우림을 보존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필레알루포의 추장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즘과 같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응답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울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때때로 가정에서조차 부정적인 영향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중에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버리”라고 권하는 내용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행하여 그와 같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천국 회의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올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니파이서 2:11)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대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갈 방법을 마련하여 놓으셨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한복음 14:6 참조)

사실 구세주께서 우리들이 지상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9:16 참조)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에,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둘째로, 예수님은 필멸의 상태에서의 성역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신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고,”(교리와 성약 20:22)

세 번째로, 구세주께서 고통과 슬픔과 병과 유혹을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세주께서 도와 주실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라고 엘마는 예언했습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 7:11~12)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 외에, 주님께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온갖 선한 일을 굳게 지키”는데 필요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모로나이서 7:28) 확실히, 구세주는 그 자신이 “온갖 선한 일”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께 매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야고보서 1:22)

독자 중 한 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적용함에 따라 공포와 의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힐라맨은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 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

을 보내며 회오리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 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끌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히라랜서 5:12)

악마의 세찬 바람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독자 응답

주님을 믿는 저의 신앙은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강해집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상대되는 것 없이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유혹을 물리칠 능력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구세주에 대한 저의 신앙을 키우며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포우이니 로무,
누쿠알로파 통가 남 스테이크
하아테이호 제2와드

우리는 타인의 행동, 텔레비전이나 영화, 그리고 신문이나 다른 인쇄 매체에 의해 끊임없이 악한 일들에 노출됩니다. 주님의 채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일 성도로서 받게 되는 유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이상을 받아 들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권고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먼저,
이탈리아 팔레르모 지방부
리카타 지부

저는 선행을 하고 매일 주님의 생애를 기억함으로써 악한 일들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이 가져다 주는 큰 축복입니다. 구세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유혹에 굴복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 티 탈리아올리,
누쿠알로파 통가 무아 스테이크
무아 제2와드

저는 경전과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말일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마르 티 모이세스,
필리핀 우르다네타 스테이크

비날로난 와드

저는 대학생으로서, 제 주변에 비회원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할 때 저는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저의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웅 건리,
타이완 타이퐁 스테이크
타이퐁 제3와드

우리는 시련이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나쁘게 대해 준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직면하셨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세주께 마음을 열면 구세주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서서 2:25)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각자가 주님 보시기에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베타 마란곤,
이탈리아 베니스 스테이크
테레비소 지부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저는 경전 읽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저는 기도으로써 주님을 찾을 때 영감 받음을 느낍니다. 금식 기도는 저의 마음을 열어 주고 영원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 줍니다.



캐롤라이나 에이 나치겔,
브라질 산타마리아 스테이크
이타임베 워드

선교사로서 저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이 충만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그들이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의 약속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발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을 느낍니다.



미구엘 마르셀로 벤테스 장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선교부

경전뿐 아니라 사랑과 영감으로 가득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한 구세주의 속죄에 대한 간증은 저에게 비판적인 영향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망과 힘과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선교사로서 저는 시련과 반대되는 것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의 신앙을 실천할 때 기적을 이루

게 됩니다.



알테나 에밀리아노 멘디스
사매 선교사
브라질 벨로 호라이즌테 동
선교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대관장단의 권고를 따르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음으로써,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순종하는 교회의 회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많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조 마티스타 드 울리베이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스테이크
파라노아 지부

제가 일상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저는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가 받는 시련은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시련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클라라 루르메스 디 마구이,
리마 페루 마그달레나 스테이크
엘리오 워드

저는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항상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고 교회와 세미나리와 신학원에 활동적으로 참가하며 경전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키울수록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 주시는 구세주에 대한 희망의 위대한 선물을 지닐 수 있습니다.



멜마 에이 안달레스,
필리핀 카타르만 지방부
알렌 제1지부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9년 1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Floor 2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워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보내실 응답이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실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응답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회개의 단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사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매스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하는 5만 5,500명의 관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비수를 제치고 공을 네트로 차넣을 때 아드레날린이 몸 속에서 분비됩니다. “골인!”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관중을 향해 승리의 표시로 팔을 듭니다.

영국 리버풀 스테이크 레이 와드에 다니고 있는 18세의 데이빗 브라운은 그러한 상황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데이빗은 17세에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청소년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으며,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영국 제일의 청소년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센터 포워드를 맡고 있습니다. 구단의 예비 선수로서 데이빗은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데이빗은 주전 팀과 매일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훈련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주일에 나흘을 구단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이사이에 대학교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저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데이빗은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받은 훈련에는 주전 팀의 신발을 닦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을 정돈하는 것도 돕고, 공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 바람을 넣습니다. 그것은 예비 선수가 따라야 할 전통입니다. 또한 특권이기도 하죠.” 축구 스타들의 신발을 깨끗이 할 때 데이빗은 그가 따라갈 발자국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지닌 재능과 힘든 연습이 데이빗 베컴이나 라이언 그릭스 같은 선수들이 누렸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또래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 포워드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짧은이능은 어디서든지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데이빗은 어렸을 때 축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저의 형들은 수를 맞추기 위해 항상 저를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이 11세 때, 스포츠에 대한 그의 재능은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뽑힌 데이빗은 자신의 고향인 볼튼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볼튼 최고의 선수가 된 그는 올드햄 선수단에서 뛰도록 스카웃 되었습니다. 올드햄과의 4년 계약이 끝나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데이빗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팀에서 유일한 말일성도로서 그는 자신의 표준을 높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제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선수들을 따라 술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저의 사회 생활에 대해 트집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자신의 간증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데이빗은 일요일 모임과 평일 활동 모임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테이크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시다. 그리고 저는 가정 복음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죠." 그가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함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거나 데이빗을 기억하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데이빗은 말했습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한 것은 제가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데이빗은 새벽 세미나리에 참가했었습니다. 세미나리 교사로 13년을 봉사한 그의 어머니는 그의 형들과 데이빗을 가르쳤습니다.

"형들은 좋은 모범을 보여 주고 저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데이빗은 말합니다. 다른 집안의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브라운 집안의 형제들도 서로 힘을 자랑하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합심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생각해 주고 서로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의 형 셋은 모두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브라이스는 미국의 오클라호마로, 개리는 영국의 런던으로, 폴은 영국의 리즈로 떠났습니다. 형들이 각각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세미나리 학생 수는 적어졌습니다. 데이빗이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수업에 참석하는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경전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간증을 키워 나갔습니다.

브라운 자매님은 어머니로서, 선생님으로서, 데이빗의 간증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데이빗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복음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브라운 자매님은 단언했습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데이빗이 좋아하며 또한 데이빗을 강하게 해주는 성구는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입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데이빗은 "저는 저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도 그가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축구 시합이 자주 일요일로 일정이 잡히지만, 데이빗은 11세 때 안식일에는 축구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데이빗의 코치와 매니저는 그의 이런 결정을 존중했고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데이빗은 그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는 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종족 약천후로 인해 경기가 연기되기도 합니다. 인젠가 한 시즌이 끝날 즈음에 일요일로 잡혀 있던 모든 경기가 미뤄지고 대신 주중에 경기가 치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섯 게임 모두 출장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32골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빗은 그 시즌 최고 득점 선수라는 칭호를 얻었고 "일요일에는 절대 축구를 하지 않는 소년"이라는 평판도 얻었습니다.

데이빗은 짧은 자유 시간에 부모님, 그리고 형들과 같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저의 최고의 친구는 형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이 차가 별로 없습니다. 브라이스는 25세, 개리는 22세, 폴은 21세, 데이빗은 18세, 그리고 스티븐은 15세입니다. 그들이 다니는 와드에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신권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데이빗의 성공의 열쇠는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데이빗이 소년으로서 얼마나 자립심을 키우고 싶어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데이빗은 언제나 연습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학교 숙제든지 세미나리 과제든지, 데이빗은 투덜거리지 않고 그것들을 해냅니다. 데이빗은 우리 집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스스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말로 인해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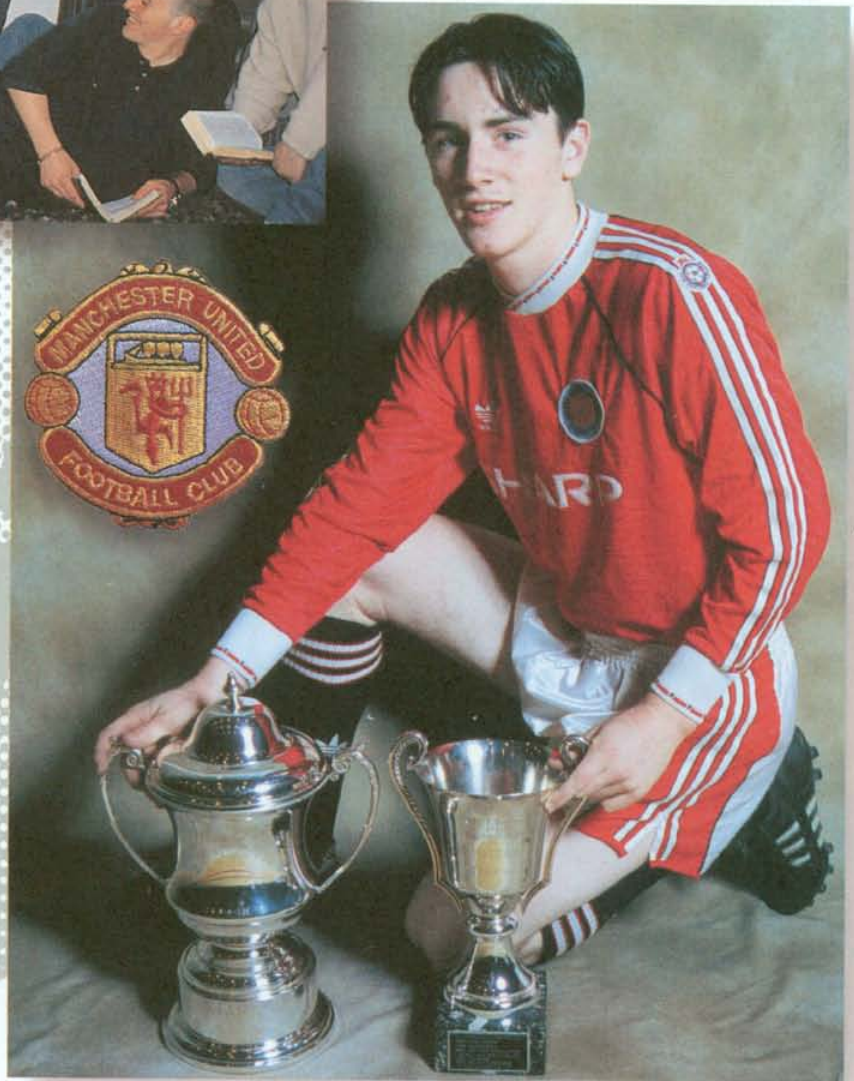
빛을 귀찮게 했죠. 데이빗은 뭘 하든지 열심히 할 능력이 있습니다.”

노력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빗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첫 번째로 하십시오.” 축구 선수 스타가 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를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러나 그 위대함은 그가 받은 운동 선수로서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형들, 부모님 그리고 팀 선수들이 보인 모범을 따름으로써 데이빗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데이빗은 열심히 연습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하며 그의 눈을 목표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



데이빗은 그의 가족들과 복음을 공부하며 보낸 시간 동안에 훌륭한 영적 기반을 찾았다. 아래: 데이빗이 자신이 받은 트로피를 보여 주고 있다.



여러분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따르기로 한 그 사람의 운명 또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최상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놓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통하여 선과 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세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으며 이 지상 생활을 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록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비록 간단하고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조상에게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후손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간단한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 예언자를 따르십시오.
- 영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날 따라라”(찬송가, 65장)는 그분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원수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에베소서 6:11)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이며 모든 “거짓의 아버지”(니파이서 2:18)입니다. 주도면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사탄의 부단하고 교활한 책동으로부터 보호받으려 한다면,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패나 스칸디나비아식 전채를 먹듯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담아 먹는 방식으로는 여러분은 결코 복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잔칫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모두 골고루 먹어 보아야 하며 주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

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배웠으며,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금식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복음을 나누고, 정직하고, 참되며, 순결하며, 친절하며, 유덕해야 합니다.

예언자를 따르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나 종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지상에서 주님의 대변자인 예언자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유럽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지를 여행하면서 회원들 및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모임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의 존 랑지랜드 부장 부부와 함께 노르웨이, 알타에 있는 한 작은 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극지에 사는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지역 지도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동안, 그곳보다 더 북쪽으로 세계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함메르페스트에 작은 지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년 전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처음으로 함메르페스트 지부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에 관한 이야기는 후에 주님께서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택하신 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메르페스트는 일반적인 교통 수단으로는 가기 힘든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원래 수상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밀비재 하지만, 기상 상태가 급변하는 바람에 수상 비행기를 타고 그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상업용 비행장이 있는 함메르페스트에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알타에서 차로 여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가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덮였습니다. 헌터 장로와 [레오 엠] 제롬슨 선교부장은 여러 번 차에서 내려 눈길에서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때, 마침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차를 견인하여 산 정상을 넘어 함메르페스트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7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모임에 마침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엘리너 노울즈 인용, *하워드 더블류 헌터*(1994년), 175~176쪽)

함메르페스트의 회원들은 사도를 만나 주님의 특별한 증인이라 불리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 시간 반 동안이나 헌터 장로가 오기를 기다렸습

니다. 그들의 신앙과 희망과 기도는 구세주에 대한 헌터 장로의 확신에 찬 간증으로 채워졌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이 교회의 새로운 예언자로 발표되던 날, 그는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과 희망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키우고 발전시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 역시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을 따르십시오

교회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을 때, 워스런 자매와 저는 몰로카이 섬으로 구경 간 적이 있었습니다. 힘겹게 등산을 마치고 차로 되돌아오는 길에 정상 을 향해 오르고 있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진지한 마음과 사귀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그에게 제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에서 봉사한 관계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조금 안다고 말했습니다. 영은 제게 복음을 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끼여 들어 우

리의 짧은 만남을 방해하는 바람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실패했던 것입니다.

차를 몰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몰로카이의 아름다운 폭포를 보러 가려고 섬을 한바퀴 도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른 차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젊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내려 제게 정답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내민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내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독일 뒤셀도르프 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독일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과 독일 사람에 대해 제가 감탄 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몇 가지 복음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제가 주소와 전화 번호를 묻자, 그는 기꺼이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편지를 보내 독일 뒤셀도르프 선교부의 존 에프 찰스 선교 부장에게 선교사를 보내 토론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그 젊은이를 두 번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반복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이 분명하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니파이일서 17:45) 제 마음속에서 속삭였을 때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게 또 다른 기회란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롭게도 제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이 속삭일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젊은이는 제가 전한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달한 그 메시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제 마음속에 전해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영은 언제나 저를 인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마음을 밝혀 주고,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가장 소중한 데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영을 따르십시오.

복음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와 그분의 영을 따른다면,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의 간증은 더욱 강하게 자라고,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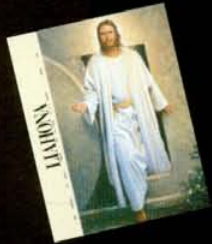
1994년 9월 4일 브리감 영 대학에서 가진 노변의 모임에서 하신 말씀에서 채택함

우리는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가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일곱 우리가 치듯
기 외치고 싶습니다."

브리감 영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

(20쪽)



도의 빛 구독 신청을 하여 살아 계신 하나
의 예언자가 주시는 권고와 명철을 받아들
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생을 눈을 반쯤 감고 살지 않도록 하십시
오. 깨어 나십시오! 오늘 구독 신청을 하십
시오!

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성도의 빛에
옵니다.

대관장단의 메시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의 추가 기사

방문 교육 메시지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함께 나누는 시

간 제언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기사

교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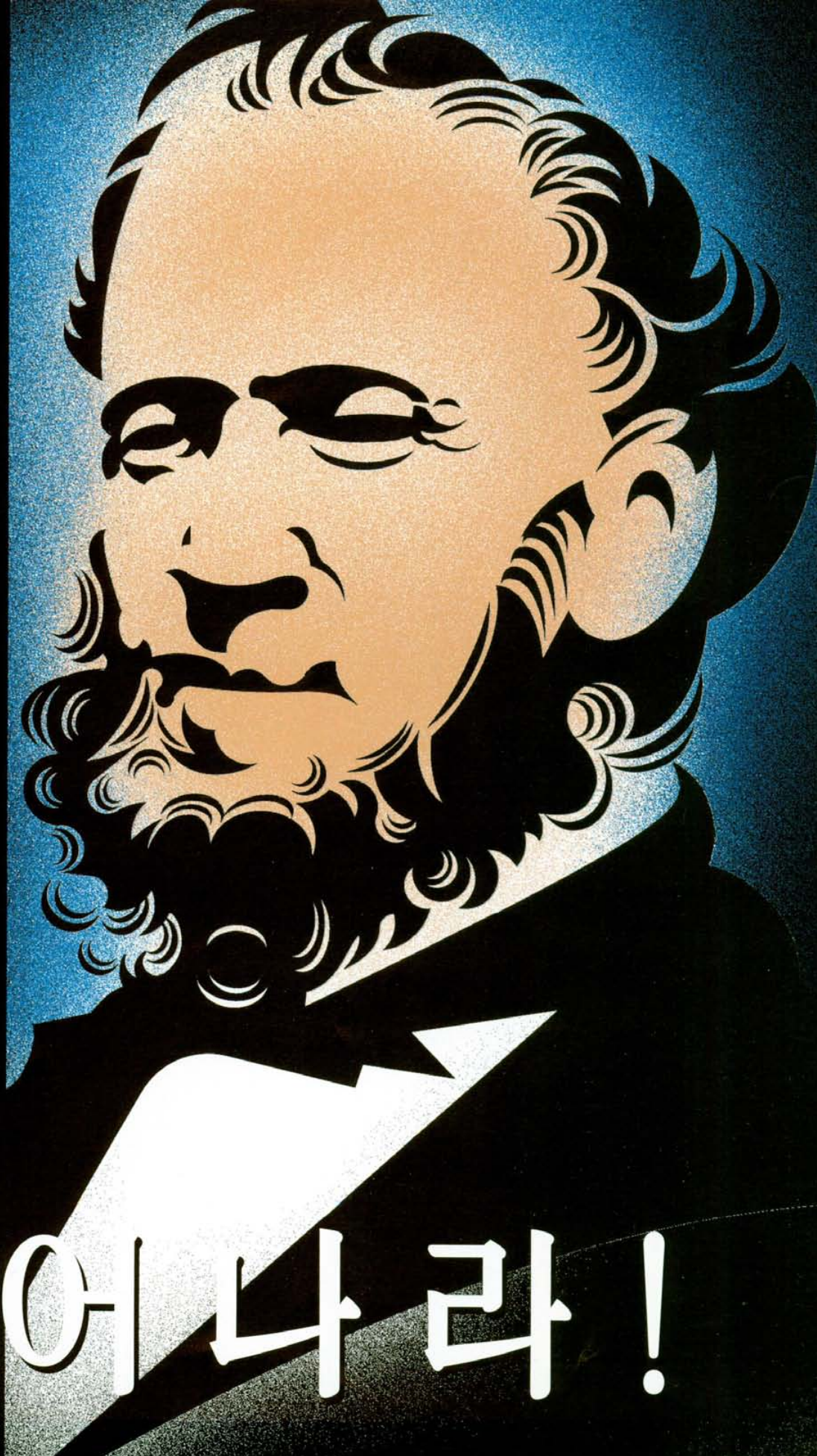
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구독 신청하는 방
에 대한 정보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또는 지부 서기에
게 연락한다.

성도의 빛 첫장을 살펴본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1-800-537-

5971로 연락한다.



깨어나라!



“날마다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사랑에 찬 말과
신속한 용서와 사려 깊은 감정
표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함, 26쪽)

